

프레임 분석을 통한 대통령기록관 관련 SNS 인식변화 연구*

A Study on the Recognition Change of SNS about Presidential Archives through Frame Analysis

최두원, 전북대학교, allregi@nate.com
오효정, 전북대학교, ohj@jbnu.ac.kr
윤승욱, 전북대학교, yunsunguk@naver.com
김 건, 전북대학교, godardkim@jbnu.ac.kr

Doo Won, Choi, Chonbuk National University
Hyo Jung, Oh, Chonbuk National University
Sung Uk, Yoo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Geon, Kim, Chonbuk National University

본 연구는 국내 SNS 상에서 탄핵 전후를 기점으로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인식변화를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탄핵 전·중·후 대통령 기록관 관련 SNS를 수집하였으며, 프레임 분석 방법을 통해 추이를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일반시민의 인식변화를 도출하였으며, 형성 과정을 살펴보고, 시간에 따른 프레임 형성을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대통령기록관에 관련 SNS를 프레임 분석을 통해 진행하였다는 점과 시간에 따른 대통령기록관 인식변화를 비교한 기초 연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1. 서론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다. 대통령은 국민 직선제로 선출되어 국가 원수와 행정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갖으며 국군 통수권,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리, 입법, 행정, 사법에 관한 권리 등의 권한을 갖는다. 국내에서 대통령의 지위와 영향력은 막대하며, 이러한 대통령의 위상을 봤을 때 대통령의 공무수행 중 생산되는 대통령 기록물은 다른 공공기록물과 비교하여도 그 중요성과 가치가 매우 높다. 이러한 대통령 기록물은 현재 대통령 기록관에서 별도로 보존, 서비스 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관심에 비해 대통령 기록물,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인지도는 높지 않으며, 대통령 기록관 자체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최근 대통령 기록관과 관련하여 큰 이슈가 발생하였는데, 18대 대통령의 탄핵이 그것이다. ‘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에 의해 발생한 대통령 탄핵이라는 거대한 사건은 국내·외의 정세에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 이러한 사건과 함께 주목받게 된 것이 ‘대통령 기록물’에 관한 논의이다. 탄핵정국 당시 총리에 의한 청와대 기록물의 대통령 기록물 지정 등 여러 이슈가 있었으며, 이러한 이슈에 대한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5B8913575).

갑론을박은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았던 대통령 기록관은 이전에 비하여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으나, 현재까지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만족도, 신뢰도 등에 관한 평가, 분석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탄핵 전후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SNS를 분석함으로써 일반 시민들의 인식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2. 프레임 분석

프레임이란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틀을 의미하며, 조지 레이코프(George Lakoff, 2004)는 이를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형성하는 정신적 구조물(Mental Structures)’이며,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 만드는 계획, 행동하는 양식, 행동의 좋고 나쁨을 결정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프레임을 분석하는 프레임 분석 방법은 사회현상을 해석하는데 유용한 방법론으로 주로 언론과 관련되어 다루어지고 있으며, 그 영역이 다른 분야로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정 이슈에 대한 프레임 분석 방법을 통해 의미를 도출한 최근 연구로는 임양준(2013), 최종환, 김성해(2014)의 연구가 있다. 임양준(2013)은 천안함 사태에 대한 각 언론사별 사설과 칼럼을 프레임 비교 분석하여 언론사별 정치적 지향점과 보도내용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최종환, 김성해(2014)는 프레임 분석 방법을 통해 파업에 대한 언론사별 보도를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연구를 통해 파업에 대한 정권 및 언론사별 미디어 프레임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보이고, 프레임이 특정 관점과 이해관계, 맥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였다. 정수영, 황경호(2015)는 한류에 관한 한·일의 언론사별 프레임을

분석하였다. 해당 연구에선 뉴스의 헤드라인 별 명사를 추출하여 만든 의미연결망을 구조 분석 하여 뉴스의 프레임을 도출할 수 있음을 보였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탄핵 전후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인식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분석에 가장 적절한 형태인 텍스트이면서, 개인의 언어와 행동,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SNS를 대상으로 하여 수집·분석하였다. 이 중 SNS는 140자로 이루어진 텍스트로만 구성된다는 점, 수집이 용이한 점 등을 근거로 트위터로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했다. 수집 키워드는 대통령 기록관, 대통령 기록물을 포함하여 당시 이슈를 반영할 수 있는 ‘대통령 지정 기록물’, ‘대통령 기록관 이관’ 등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수집하였다. 수집기간은 탄핵 전·중·후로 구분하여 2016년 7월 24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총 18개월로 했으며, 이를 구분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탄핵 전’ 기간은 ‘태블릿 PC 보도’ 이슈의 3개월 이전인 2016년 7월 24일부터 ‘태블릿 PC 보도’ 이슈가 발생한 2016년 10월 24일까지를 기준으로 하였다. 2) ‘탄핵 중’ 기간은 대통령 탄핵 이슈의 시발점인 ‘태블릿 PC 보도’ 이슈가 발생한 2016년 10월 24일부터 탄핵선고가 이뤄진 2017년 3월 10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3) ‘탄핵 후’ 기간은 탄핵선고 이후 2017년 3월 1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하였다.

관련 트위터를 수집한 뒤 분석을 위한 프레임을 설정하였다. 프레임은 Semetko & Valkenburg의 연구에서 제안한 일반적 프레임을 활용하여 인터넷 블로그, 카페, 커뮤니티 등을 프레임 분석한 양정애, 김은미, 임영호(2011)의 연구에서 차용하였다.

<표 1> 프레임 유형

유형	질문 항목
책임 귀인	정부가 해당 이슈/문제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제시하고 있는가?
	개인(혹은 단체)이 해당 이슈-문제에 책임이 있다고 제시하고 있는가?
인간적 흥미	분노, 감정이입/공감, 동정, 연민의 감정을 일으키는 표현이 쓰였는가?
	주요 행위자들의 사적 혹은 개인적 삶을 다루고 있는가?
갈등	분노, 감정이입/공감, 동정, 연민의 감정을 일으킬 만한 시각적 정보를 담고 있는가?
	정당-개인-단체-국가 간 의견차를 반영하고 있는가?
	하나의 정당-개인-단체-국가가 상대를 비난하고 있는가?
도덕성	해당 이슈 혹은 문제에 대해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편(side)을 언급하고 있는가?
	도덕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가?
경제적 결과	현재나 미래의 경제적 손실 혹은 이득에 대해 언급이 있는가?
	관련(사회적)비용 혹은 비용의 정도에 대한 언급이 있는가?

출처: 온라인 환경에서의 뉴스프레임 형성- 뉴스 토픽과 작성자에 따른 차이. 양정애, 김은미, 임영호(2011)

<표 2> 대통령 기록관 관련 탄핵 전·중·후 트위터 빈도

구간	개수	좋아요	리트윗
탄핵 전 2016-07-24 2016-10-23	429	2,030	5,079
탄핵 중 2016-10-24 2017-03-10	2,059	13,366	48,341
탄핵 후 2017-03-11 2017-12-31	6,227	83,399	187,993
Total	8,715	98,795	241,413

이후 수집된 트위터에서 표본을 추출하여 프레임 분석을 진행하였다. 프레임 분석을 수행할 때 단순 단어를 통해 분류하는 것이 아닌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을 파악하여 분류되, 개인적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텍스트 자체만을 분석하기 위한 지침을 세웠다. 또한 여러 트위터를 분석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각 트위터 사이의 간섭을 방지하기 위해 분석간 충분한 시간편차를 가지고 진행하였다. <표 3>은 각 트위터가 어떠한 프레임에 속하는지를 보여주는 예시이다.

4. 분석결과

트위터 수집 결과 총 8,715건의 트위터가 수집되었으며 이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구간별로 ‘탄핵 전’ 구간에는 429건, ‘탄핵 중’ 구간에는 2,059건, ‘탄핵 후’ 구간에는 6,227건이 수집되었다. ‘탄핵 전’ 구간에 트위터 개수가 429건인 것에 비하여, ‘탄핵 중’ 구간에는 2,059건으로 약 5배 증가하였으며, 탄핵 이후에는 약 15배 증가하였다. 트위터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좋아요, 리트윗 등의 상호작용 또한 탄핵 전과 중, 후를 비교하면 각각 약 6배, 41배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대통령기록관 관련 SNS 프레임 예시

프레임	텍스트
책임귀인	현재까지 확인되는 내용만으로도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 10여개의 죄목. 특별법에 의한 특검 즉각 실시해야 하며, 대통령도 반드시 조사 대상 되어야..
인간적 흥미	청와대가 세월호 관련 자료를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했다. 30년간 봉인... 대선 전 마지막 은폐를 한 것이다. 아 정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갈등	청와대 공개문건이 대외비? 여야, 날선 공방 민주당 단순 대통령기록물, 국회서도 진실 규명해야 한국당 청와대 사전인수 해석, 법률적 대응 나설 것
도덕성	이 비열한 색깔전쟁.. 다시 대통령기록물을 보자하는데, 기록물관리법은 당신들 정쟁의 도구를 증명하라고 한 것이 아니다. 제발 양심줍 찾기를
경제적 결과	-

이후 표본을 추출하여 트위터에 대한 프레임 분석을 진행하였다. 표본은 각 구간별 수집기간을 고려하여 탄핵 전, 중 구간에서 50개, 탄핵 후 구간에서 100개씩 추출하였다. 표본 추출은 각각의 트위터가 얼마나 많이 전파, 공유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인 '리트윗'이 높은 트위터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탄핵 전·중·후 트위터 프레임 분석결과

프레임	탄핵 전 16.07.24 16.10.23	탄핵 중 16.10.24 17.03.10	탄핵 후 17.03.11 17.12.31	Total
책임귀인	18 (*36%)	22 (44%)	33 (33%)	73
인간적 흥미	11 (22%)	9 (18%)	32 (32%)	52
갈등	12 (24%)	4 (8%)	12 (12%)	28
도덕성	9 (18%)	15 (30%)	23 (23%)	47
경제적 결과	0	0	0	0
Total	50	50	100	200

* 18/50 = 36%

표본을 분석하여 나타난 탄핵 전·중·후 프레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프레임 중 책임귀인 프레임이 가장 많았으며(73건), 인간적 흥미(52건), 도덕성(47건), 갈등(28건) 프레임이 그 뒤를 이었다. 경제적 결과 프레임은 나타나지 않았다. 각각의 프레임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책임귀인 프레임의 경우 탄핵 전(36%), 후(33%) 구간에서는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으나 탄핵 중(44%) 구간에서는 '태블릿 pc 보도'에서 '탄핵' 전까지의 이슈의 성격에 의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인간적 흥미 프레임의 경우 탄핵 전(22%), 중(18%)에는 낮은 비율을 보였으나 탄핵 후(32%) 구간에서는 '세월호', '정부 문건 3차 공개' 등의 이슈와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갈등 프레임의 경우 탄핵 전 (24%) 구

간에 비해 탄핵 중(8%), 후(12%) 구간에는 낮은 비율을 보이며, 도덕성 프레임은 이와 반대로 탄핵 전(18%) 구간에 비해 중(30%), 후(23%) 구간에 높은 비율을 보인다. 이는 당시 발생한 '태블릿 pc 보도', '탄핵' 등의 이슈가 대상간의 갈등이 아닌 당시 정부에 대한 일방적으로 비판이 많은 것에 기인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탄핵 전후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인식변화를 조사하기 위해 2016년 7월 24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트위터를 수집하였다. 이후 수집된 트위터를 탄핵 전·중·후로 구분하였으며, 각 트위터를 프레임 분석하여 프레임 유형과 시기별 프레임 변화를 파악하였다. 하지만 분석대상을 트위터로 한정 한 점, 프레임이 고정된 점 등이 한계로 남는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여 SNS를 분석하기에 적합한 프레임 유형의 설계, 트위터 이외의 SNS, 뉴스 등 다른 매체와의 동시 비교분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양정애, 김은미, 임영호. (2012). 온라인 환경에서의 뉴스프레임 형성. 한국언론학보, 56(1), 264-288.
 임양준. (2013). 한국 신문의 천안함 사태에 대한 프레임 비교 분석. 사회과학연구, 52(1), 251-285.
 정수영, 황경호. (2015). 한·일 주요 일간지의 한류 관련 뉴스 프레임과 국가 이미지. 한국언론학보, 59(3), 300-331.
 최종환, 김성해. (2014). 민주주의, 언론 그리고 담론 정치. 한국언론정보학보, 152-176.
 Lakoff, George. 2004. Don't Think of an Elephant: Know Your Values and Frame the Debate. Chelsea Green Publishing.